

■ 전시 서문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

Walking on Canvas; 회화라는 실황

발걸음은 표정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발길 닿는 대로”라는 말은 “감각, 직관, 감정 등이 이끄는 대로”로 바꿔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합적인 감각의 총체가 ‘걷는’ 방향을 결정한다. 이번 전시, 《Walking on Canvas》에서 신준민 작가와 조현선 작가의 캔버스에 닿는 붓질이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걷는 행위와 닮아있다고 가정한다. 흰 캔버스가 작품이 되는 과정은 작가가 다루는 각기 다른 에너지의 붓질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시각화되는 형상과 색채로 이루어진다. 캔버스는 회화를 일종의 ‘실황’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화면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붓질의 궤적을 통찰하여 결론을 내고 이름을 붙이는 절차를 내려놓는다. 미지의 땅을 내딛는 걸음처럼 한 점의 페인팅에서 캔버스와 작가 사이를 두고 벌어지는 서성거림과 과감한 도약과 같은 흥미로운 전개가 펼쳐진다. 그렇게 완성된 회화는 행위 이후의 흔적이 아니다. 두 작가가 그리는/꿈꾸는 캔버스 안팎에서 이루는 긴장감과 균형 그리고 유연함은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고 치열하기 때문이다.

신준민; 빛으로 빛 되기

신준민 작가는 ‘빛’을 가시화하는 작업에 천착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빛을 발산하는 인공적인 장치나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자연물들에 관심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빛이 사물을 통과하여 생긴 특정한 형태나 인공 조명의 빛을 소재로 삼았다. 그중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시리즈는 대구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지금도 종종 찾고 있는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조명을 특정하여 그린 것이다. 2015년부터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스포트라이트’는 같은 장소에 있는 조명이지만 점등되는 순간, 빛은 다양한 모습은 폭발적으로 산출되며 하얗게 부서진다. 이 빛은 실시간으로 산란하고 반사되면서 눈을 깜빡이는 순간순간 금세 모습을 바꾸며 점차 연한 잔상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강한 빛을 직면한 하얗게 반사된 대상을 “하얀 그림자”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며, 작업실에서 어떤 형태로 정해지지 않은 당시의 빛을 떠올리며 하얀 캔버스 앞에 서는 작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작가의 캔버스에서 조명과 조명 사이의 간격은 색채와 감정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고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성에 따라 물감이 쌓이거나 전체 색감이 변화를 거치며 다시 형태가 흐트러지고 과감하게 선이 등장하기도 한다. 신준민 작가는 공기에 부유하는 미립자에도 산란하는 ‘빛’처럼 행위하다가 그저 ‘빛’이었던 것처럼 화면/캔버스를 마감한다.

조현선; 물웅덩이를 뛰어넘는 자

조현선 작가는 ‘추상 회화’에 대한 탐구를 위해 2011년부터 자신의 페인팅 한 점을 모체로 하여 종이에 파스텔, 캔버스에 유화 기법으로 파트를 구분하며 변주한 ‘반달색인Thumb Index’ 시리즈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웅덩이를 뛰어넘는 자”를 가리키는 ‘퍼들점퍼Puddle Jumper’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물’이라는 구체적인 소재가 등장하는 이번 작품들은 조현선 작가가 추구하는 ‘추상 하기’를 알 수 있는 강력한 단서가 될 것이다. 또한 ‘반달색인’에서 형상과 색채들의 경계가 뚜렷한 반면, ‘퍼들점퍼’는 넓은 붓으로 그리는 색면들이 가

려지고 비치면서 자유로운 구성을 이룬다. 실제 물웅덩이에 물을 튀기듯 유희하는 아이나 강아지처럼 색을 넘나들며 자연스레 물감이 튀는 현장 또한 그대로 남겨둔다. 이번 전시 출품작 중 100호 크기의 작품, 〈Puddle Jumper_Waterwalk_Burning Orange〉은 존 케이지John Cage가 1960년에 TV쇼에서 선보인 〈Water Walk〉 퍼포먼스를 보고 제작한 작품이다. 욕조 안에 담긴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 믹서기에 큰 얼음이 아주 살짝만 돌아가게 만들어 내는 맑은 음, 압력솔의 증기를 빼는 소리 등 쇼를 보는 사람들의 웃음 소리 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공감각적 요소까지 끌어들이며 '물'이라는 유동적인 물성과 작가의 회화적 태도가 일치됨으로써 '퍼들점퍼'의 변주는 더욱 과감하게 가속화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Walking on Canvas》에서 신준민 작가와 조현선 작가는 백지 상태의 흰 캔버스를 지휘하는 창조자인 동시에 천천히 또 빠르게 형상과 색채를 탐색하는 대지의 모험자이다. 온몸으로 빛을 맞이하고 또 물에 흠뻑 젖어 들며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캔버스 안팎을 드나들며 끊임없이 미(학)적 추격을 시도한다. 작가만의 방식으로 회화를 회화로써 탐닉하는 두 작가의 작품과 제작 과정에서의 행위가 중첩되어 보이는 이유는 '빛'과 '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함에 대한 단면을 마치 실제 상황으로서 캔버스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